

켜켜이 쌓인 찰나의 순간들...우리네 삶은 아름다웠노라

'시간의 흐름'이라는 보편적이고도 깊이 있는 주제를 통해 독창적인 시각과 감성을 펼쳐보이는 9명 작가 초대전이 마련됐다.

내년 1월16일까지 아천미술관(영암군 신북면 하정길 12-7)에서 열리는 기획초대 9인전 '시간의 문을 열다. 2025'다.

이번 전시는 시간 속에서 겪는 변화와 그로 인한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전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흐름이나 숫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삶의 경험과 변화를 담은 역동적인 존재로 재해석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9명 작가들은 일상과 자연, 인간의 감정과 내면을 통해 시간의 의미를 탐구하며 각자의 작품 속 시간과 삶의 상징,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박성휘 작가는 여성의 내면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과의 대화를 작품에 담아낸다. 작품에서는 고단한 삶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한복의 단상화, 빛과 그



박성휘작 'THE WOMENSTORY- Together'

영암 아천미술관 기획초대 9인전 '시간의 문을 열다'...내년 1월16일까지



박혜경작 'Song of dreaming'

림자를 통해 여성의 내면을 조형적으로 표현한다.

박혜경은 '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며 내적 심상과 희망을 표현한다. 단순화된 형태와 과감한 원색의 꽃을 통해 꿈과 희망, 행복을 드러낸다. 이와 함께 그림 속 수국, 달항아리, 찻잔과 같은 소재는 소박하면서도 자연의 색채와 어우러져 독특한 심상을 형성한다.

이호국은 점·선·면이라는 미술의 기본 요소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포착한다. 선과 점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들어낸다. 작품 속 선은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특성을 지니며, 시간 속 변화하는 감정과 사고의 흐름을 상징한다.

임수영은 '일상으로부터'라는 주제를 통해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한다. 작가의 드로잉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선과 점,



정순아작 '들뜬바람을 풀어놓아'

면이 혼재된 그의 작품은 감정의 흔적을 시각화하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자연과 인간 관계를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정순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가을의 풍성함과 자연의 생명력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을 선보인다. 가을 들뜬 풍요로운 비는 풍요와 나눔 그리고 삶의 결실을 의미한다.

정정임 작가는 나뭇가지와 인간 형상을 연결해 자연과 인간의 복합적 감정을 표현한다. 그의 작품은 사람의 혈관과 나뭇가지의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을 탐구한다.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선들은 인간의 열정과 생명력을 상징하며,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시각화한다.

'나무'를 통해 여성 삶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진허 작가는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한다. 작품 속 나무는 제도 속 뿌리나

리고 성장하는 여성의 모습을 상징한다. 나무가 풍파를 견디며 성장하듯, 여성 또한 고난과 인내를 통해 성숙해 짐을 이야기한다.

최근일은 배꽃을 소재로 시간의 흐름과 섬세한 감정을 표현한다. 배꽃의 흠어지는 이미지와 여백을 강조한 화면 구성은 깊은 감동을 전달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한다.

'기억나무' 시리즈를 선보이는 한갑수는 상처와 변화를 견디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그의 작품 속 나무는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가는 과정을 상징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담아낸다.

김현희 학예연구사는 "관람객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변화를 되새겨보길 바란다"며 "작품을 감상하면서 흘러가는 시간 속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마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이호국작 '나들이'

'오방색에 감동을 입히다'

한국전통채색화협회 회원전...13일까지 도립도서관 남도화랑

우리의 일과 멋이 듬뿍 담긴 한국전통채색화가 한자리에 모였다.

2024 한국전통채색화협회(회장 최숙) 송년 정기회원전이 오는 13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 남도화랑에서 열린다.

'오방색에 감동을 입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우정 김생수(우정미술관장) 작가의 '눈오는 날의 고목' 작품을 비롯해 박사·장수·부귀·행운 등 상서로운 뜻을 담은 회원 31명의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그중 '본태박물관 모란도'는 쪽물감을 사용해 점을 찍고 색을 입힌 배경과

풍성한 모란꽃잎이 돋보인다.

이밖에도 전시에서는 해바라기, 연꽃, 달항아리, 소나무와 학 등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낸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최숙의 회장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송년 전시에서는 한국적인 조형미와 미적 가치를 담은 그림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과 창작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일구며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사유와 울림, 시대정신을 전하는 회원들의 작품을 관람하며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최숙의작 '본태박물관 모란도'

국악 스타들이 뜬다 "연말이 흥겹다"

12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

창단 30주년을 맞이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이 올해 마지막 연주회로 시민들을 찾는다.

동서양의 장르를 넘나들며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여온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송년음악회 '선물'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는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을 비롯해 '조선관스타' 우승자 김산옥, '풍류대장' 임재현, 경북대 김준희 교수, 국가무형유산 승무 이수자 최승희 등 대중 국악 스타들이 대거 함께한다.

변화무쌍한 리듬감으로 폭넓은 음색과 뜨거운 에너지를 전하는 이정호 작곡가의 위촉초연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무곡 불의 춤'을 시작으로 해금의 기교를 감상할 수 있는 이정민 작곡가의 '활의 노래', 피리리를 연상케 하는 궁중무용



이희문

김산옥

임재현

'춘앵무' 무대가 연이어 펼쳐진다.

다음으로 임재현, 김산옥, 이희문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국악가요 '난감하네', '시리령 싫군', '살풀이', '와', 'Hit me + 제비노정기', '아허구자', '나리소사'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